

許浚의 自然觀

-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

朴成圭, 金守中, 金南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철학과장

Abstract

Heojun's Outlook on Nature

Park Seong-Kue, Kim Sue Joong, Kim Nam Il

Dept. of Korean Medicine and Philosophy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Heojun was the top scientist on Medicine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and wrote the Dongeubogam describing the top-level medical theory and technology. So far, his outlook on nature has been disregarded even though his medicine is still effective. Through this study, I would like to know if his outlook on nature as well as his medicine is still effective.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According to his output, the origin of the universe started from the spinning of One Gi(一氣)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Hawking's theory. Hawking assumed that the origin of the universe started from the Big-bang and will end to the Big-crunch. However, the current report on the origin of a star is quite similar to Heojun's theory and we acknowledge that his view on the origin of the universe is still effective.

2. According to his output, the universe repeats expanding and contracting forever while Hawking assumed it will come to the end, the Big-crunch, based on the expanding universe theory. Some scientists assist that Hawking's assumption should have some contradictions. Now, we acknowledge that Heojun's universal cycling theory which corresponds with modern physical theories is still effective, which would lead to a new environmental movement.

3. His view on the structure of the univers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output of the current science, which results from his thought that the nature should be reviewed from the point of human's view. His view on the structure will be able to be updated based on the output of the current science.

4. The universe analogy started from the East Asian area as well as the Greek and Roman area in the ancient. The idea has disappeared since the scientific revolution era in the West while the idea has been deepened and abundant in the East and has become one of the major philosophical bases. Heojun emphasized its importance from the beginning of his book.

5. The nation analogy has been popular all times and places. According to his output, governing a country is like controlling one's body.

6. According to Needham's output, the universe analogy and the nation analogy were based on the ancient developed alchemy. And Harper assumed that Taosm was based on the macrobiotic hygiene which was developed by the ancient developed alchemists. We acknowledge that xian(仙) cult, macrobiotic hygiene, medicine, alchemy and the ancient philosophy started from our ancients. Heojun's output restored our ancient tradition by combining the macrobiotic hygiene and philosophy with medicine.

7. Roughly predicting yearly weather would be unacceptable by the current scientist but Heojun's yearly weather forecast is still used in the clinic and seems effective to prepare from any epidemic disease.

8. 'Day and Night' and Four season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the macrobiotic hygiene according to the Donggeubogam. The new environmental movements should be based on the most important factors, otherwise the human beings as well as the environment would fail to survive.

9. Wind, Coldness, Heat, Humidity, Dryness and Fire represents weather. The six weather factors represent one of six phases of a year which is decided by the areal factors. Heojun preferred the six factors generated in the body itself to them from the outside. He thought a human being was a universe and the six factors generated in the body responded to the factors of the outside.

10. According to his output, Heat and Humidity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which make a human being ill.

11. Life span, disease, food, and dwelling are dependent upon the geographical feature, according to Heojun's output. In addition, one's appearance and his five viscera and the six entrails depend on the food as well as the geographical feature.

12. Heath is related with the environment and they effects upon each other. If one is weak, he will be deeply effected by the nature. On the other hand, if one is strong, he will effect on the nature. That's why people live together.

13. According to Heojun's work, the society is an important factor comprising the environment. During a peaceful era, the society becomes stable and human beings

are stable as well while they will be on fire during a chaotic era.

14. Medicine deals with human beings who live in the nature, so any medical book cannot be excellent unless it has any description on the nature. Heojun's outlook on the nature turned out to be logical and suitable even from the point of the current view and it is still effective as if his clinical knowledge and technology are still effective. Something unsuitable may be substituted with the output of the current science.

1. 序論

韓醫學에서 自然觀은 매우 중요하다. 『東醫寶鑑』에서도 醫師는 마땅히 天地間의 運氣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 人間을 小宇宙로 보며 天人相應한다고²⁾ 생각하는 우주 아날로지는³⁾ 동아시아 文化의 核心要素 중에 하나이며 韓醫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自然 法則이 그대로 人間에 投影된다고 생각했으며, 自然은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유지하도록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疾病의 原因을 제공한다고 파악했다. 呼吸을 통하여 天氣를 받아들여 氣를 충실하게 하고, 飲食을 통하여 地氣를 받아들여 血을 滋養함으로써 人體를 榮衛하는 에너지를 얻는다. 반면에, 自然에서 발생하는 風, 寒, 暑, 濕, 燥, 火 등 六淫은 人體에 疾病을 일으키는 가장 큰 邪氣이다. 自然이 인간에 많은 影響을 미치고 있듯이, 인간도 자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環境 破壞를 恣行하고 있는 現實은 否定的인 影響이기는 하지만 그 한 가지 예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자연을 維持 存續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肯定的인 영향이다. 또한, 至誠이면 感應한다고 하였으니⁴⁾ 이 또한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라 할 수 있다.

許浚은 『鄉藥集成方』, 『醫方類聚』로 대표되는 朝鮮 初氣 즉 韓醫學의 基礎 整理期를 자양분으로 하여,⁵⁾ 『醫林撮要』를 필두로 한 韓醫學의 隆盛期에⁶⁾ 『東醫寶鑑』을 저술하여 朝鮮醫學을 최고봉에 올려놓았다. 『東醫寶鑑』은 당시 朝鮮醫學이 세계 최고 수

1) 許浚, 原本 東醫寶鑑 完營重刊影印本 新增版, 南山堂, 1998, 5刷, 서울, 天地運氣: 醫當識天地間運氣, 330쪽

2) 許浚, 앞의 책, 身形: 身形臧府圖, 72쪽

3) 조셉 니담. 이석호 옮김, 中國의 科學과 文明 II, 을유문화사, 1989, 414쪽

4) 許浚, 앞의 책, 心: 心形象, 141쪽
災異論과도 연결되며 21세기 環境論의 話頭이기도 하다.

5)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는 醫藥의 최대 데이터베이스였고 이를 위해 설치된 '醫書習讀官'은 醫書에 조예가 깊은 醫家와 儒醫의 탄생을 촉진시켰다. 朝鮮 中氣의 융성은 이러한 문화적 자양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6) 金洪均, 朝鮮 中期 醫學의 系統에 관한 研究, 1992,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21쪽
金洪均은 위 논문에서 朝鮮 初氣는 基礎 整理期로 16세기 중엽 仁宗까지, 中期는 韓醫學 隆盛期로 18세기 말 正祖까지 그리고 末期는 새로운 유형의 의학기로 20세기 초 일제 강점 전까지 구분하고 있다.

준이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⁷⁾ 이후 조선의학은 許浚이 남긴 『東醫寶鑑』을 정리하는 기간이었다. 『東醫壽世保元』 등이 나타나는 朝鮮後期 또한 『東醫寶鑑』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었다.⁸⁾ 이러한 許浚의 成就是 『醫林撮要』까지 先代 그리고 當代 醫家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당시 朝鮮 社會의 文化的 成熟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朝鮮 性理學은 비록 開國 初부터 國基로 선언되었지만 내재화되지는 못하였다. 性理學 또한 朝鮮 初氣의 基礎 整理期를 거쳐, 朝鮮 中期에 李滉, 李珥로 대변되는 隆盛期를 맞는다.⁹⁾ 性理學의 융성은 朱子의 自然觀이 내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經典에 밝았던 許浚은 자연스럽게 朱子의 自然觀을 접했을 것으로 보인다.¹⁰⁾

本 研究에서는 宇宙論, 環境論, ‘自然과 人間’을 중심으로 許浚의 自然觀을 다룬다. 『東醫寶鑑』은 醫書이므로 宇宙論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지만, 『東醫寶鑑』에 산재해 있는 宇宙 發生論, 宇宙 構造論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것이 現代物理의 宇宙論과 어떠한 類似性和 差異點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環境論에서는 人間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인 歲運氣, 四時, 晝夜, 六氣, 그리고 地理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래 天文과 氣像에 대한 고찰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東醫寶鑑』은 醫書로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고찰이 없으므로 위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自然과 人間’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살핀 環境論의 要素가 人間에 미치는 영향과 그 외 自然이 人間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주 아날로지, 국가 아날로지, 歲運과 人體, 四時와 人體, 晝夜와 人體, 六氣와 人體, 地理와 人體, 人體의 盛衰와 外邪 그리고 社會와 人體 등이 그 세부 항목들이다.

II. 本論

1. 宇宙論

宇宙論은 宇宙 發生論과 宇宙 構造論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宇宙 發生論은 宇宙의 始原에서 현재의 구조로 결정되기까지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가를 설명하며, 宇宙

7) 全炳機, 韓國科學史, 이우출판사, 1982, 서울, 324쪽

金洪均, 朝鮮 中期 醫學의 系統에 관한 研究, 1992,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14쪽 :재인용

金南一, 韓國韓醫學史 再定立(하): 제7장 朝鮮後期の 醫學, 韓國韓醫學 研究所, 1995, 서울, 13쪽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 268쪽

8) 金南一, 韓國韓醫學史 再定立(하): 제7장 朝鮮後期の 醫學, 韓國韓醫學 研究所, 1995, 서울, 6-7쪽

9)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들녘, 2005 10쇄, 서울, 18쪽

拙稿, 東醫寶鑑과 道家思想, 2005, 4-5쪽

10) 『醫林撮要』 卷之一 ‘歷代醫學姓氏’ 마지막에 許浚은 총명하여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했으며 經史에 널리 통하고 醫學에 더욱 정묘하여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拙稿 ‘東醫寶鑑과 道家思想, 2005’ 참조.

構造論은 현재 우주의 구조가 어떠한지를 설명한다.

(1) 宇宙 發生論

現代 物理學에 따르면, 빅뱅(Big bang)으로부터 宇宙가 始作되었다고 한다.¹¹⁾ 『東醫寶鑑』에서는 두 가지 方法으로 宇宙 發生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宇宙의 始作을 太易이라 보았고, 그 후 太初, 太始, 太素의 段階的 發展 樣態를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다.¹²⁾ 宇宙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를 混沌未分의 상태로 본 것은 빅뱅(Big bang)을 시작으로 보는 現代 科學과는 구별된다.¹³⁾ 이러한 混沌에서 一氣가 드러난다.

一氣¹⁴⁾의 드러남을 太初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宇宙의 始作이며 現代科學의 빅뱅(Big bang)만큼이나 중요하다. 一氣의 작용에 따라 맑은 것과 탁한 것이 가려지고 가볍고 무거운 것이 가려지게 된다. 이렇게 淸濁과 輕重을 가리는 것을 一氣의 回轉때문이라고 생각했다.¹⁵⁾

一氣의 回轉 때문에 맑고 가벼운 것들은 바깥을 감싸며 돌고, 탁하고 무거운 것들은 안으로 점차 뭉치게 되었다. 一氣의 回轉으로 形이 생겨났고 이때를 太始라고 한다. 太始는 一氣에서 陰陽 혹은 兩儀의 발생을 말한다. 形이 생기면 그 事物을 사물답게 하는 質이 생겨난다. 質은 形의 특징을 결정짓는 것으로 形質이 만나서 비로소 事物이 생겨난다. 質의 시작을 太素라고 한다. 太素는 質의 始作이므로 五行의 시작을 의미한다.

宇宙 發生을 설명함에 있어 許浚은 一氣의 回轉을 淸濁과 輕重을 가르는 原動力으로 설명하지만, 理에 대한 언급은 없다. 天地가 생기기전에 틀림없이 理가 있었으며 그것에 의해 만물이 생겨나고 조화를 이룬다는 朱子の 생각¹⁶⁾과는 거리가 있다.

별의 생성에 관한 현대과학이론은 吸着說과 併合說이 있다. 吸着說은 우주 공간의 가스와 먼지 구름이 회전하면서 생긴 구심력으로 점점 밀도가 높아져 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併合說은 상대적으로 큰 별이 작은 별들을 하나 둘 먹어치우면서 생긴다는 假說이다. 그동안 작은 별은 吸着說로 큰 별은 併合說로 설명하였으나, 최근 미국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니메쉬 파텔 박사의 연구팀은 태양보다 15배나 무거운 신생별이 태양에서 명왕성까지 거리의 8배나 되는 크기의 납작한 먼지 디스크로 둘러싸여 생성되는 것을 발견하였다.¹⁷⁾ 즉 크고 작은 모든 항성의 생성이 吸着說에 따른다는 것을 증명한 것

11) Stephen Hawking, A Brief History of Time, Bantam Books, Great Britain, 1995, The Origin and Fate of the Universe, 127 - 157쪽

12) 許浚, 앞의 책, 身形: 形氣之始, 72쪽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앞의 책, 21쪽 참조

13) 빅뱅은 증명되지 않은 호킹박사의 假說일 뿐이며 現代 物理의 宇宙論은 상당부분 호킹박사의 假說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조동일 외, 기학의 모형 2, 들녘, 2004, 25쪽

15) 야마다 케이지, 김석근 옮김, 주자의 자연학, 통나무, 1998, 131-139쪽

16) 허택 이요성 역주, 주자어류, 청계, 1999, 서울, 87쪽
具萬玉, 朝鮮後期 科學思想史 研究 I, 혜안, 2004, 서울, p81

이다. 吸着說은 바로 天地未分 상태에서 一氣의 回傳으로 우주가 발생했다는 『東醫寶鑑』 내용과 일치한다.

混沌에서 宇宙가 발생한 후에 우주는 膨脹과 收縮의 循環 運動을 반복한다.¹⁸⁾ 一元(129,600년)을 週期로 膨脹과 收縮이 반복되므로 64,800년 동안은 膨脹하며 ‘息’이라 하고, 다음 64,800년 동안은 收縮하며 ‘消’라 한다. 宇宙의 膨脹과 收縮은 영원히 계속된다.¹⁹⁾ 이러한 관점은 循環的 歷史觀에서 기인된 것이며, 直線的이며 目的論的인 西歐의 歷史觀과는 차별된다. 자연을 여러 가지 다양한 循環으로 파악했다. 陰陽, 晝夜, 四時, 一世 그리고 우주의 消息運動 등 순환은 끝없이 계속된다. 許浚은 모든 순환을 四時的 순환과 같이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있다. 이는 朱子의 下降史觀과는 차별된다.²⁰⁾

現代科學에 따르면, 宇宙의 始作은 빅뱅(Big Bang)에서 시작되어 膨脹을 계속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빅크런치(Big Crunch) 혹은 블랙홀(Black Holes)로 마감된다고 보고 있다.²¹⁾ 이러한 結論은 약간의 유효한 觀測 資料와 많은 假說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비록 基督敎의 世界觀을 탈피하여 科學的 合理主義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지만,²²⁾ 아직도 서구 傳統的 認識體制인 直線的이며 目的論的 世界觀 혹은 歷史觀이 작용하고 있다.²³⁾ 현재 宇宙가 膨脹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예전에도 그러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²⁴⁾ 이는 시계추의 어느 한순간 운동 상태만 보고 그 운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블랙홀에 대한 호킹박사의 理論이 論駁 당하고 있는 지금, 循環的 宇宙論이 代案으로 提示될 수 있을 것이다.

(2) 宇宙 構造論

『晋書, 天文志』는 宇宙 構造論으로 蓋天說, 渾天說, 宣夜說, 安天論, 穹天論, 昕天論 등 여섯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²⁵⁾ 이 중에서 蓋天說과 渾天說 만이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魏, 晉 이후 고도화된 天文學에 의해 지탱되는 渾天說이 승리하였다. 宋代 天文學 및 宇宙構造說은 渾天說을 주축으로 삼고 있다. 宇宙 構造에 대한 許浚의 생각 또한 宋代의 自然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늘은 공처럼 둥글다고 생각했다.²⁶⁾ 半球에 물이 차있고 물 위에 네모난 널빤지가 떠

17) 중앙일보, 2005년 9월 9일자 금요일 제12649호 40판 22면

18) 許浚, 앞의 책, 天地運氣: 論一元十二會三十運, 330쪽

19) 循環論은 동아시아 사상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循環的 宇宙觀은 老子 『道德經, 25章』에도 보인다. 王卡點校,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中華書局出版, 1997 2차인쇄, 101-103쪽

20) 미우라 구니오, 이승연 옮김, 주자와 기 그리고 몸, 예문서원, 2003, 35-41쪽

21) Stephen Hawking, A brief History of Time, Bantam Books, Great Britain, 1995, 127쪽

22) Stephen Hawking, A brief History of Time, Bantam Books, Great Britain, 1995, 128쪽

23) 李相信, 歷史學 概論, 신서원, 2004 4쇄, 139-184쪽

24) 칼 세이건, 서광운 역, 코스모스, 주우, 1983 18판, 388-390쪽

25) 야마다 케이지, 김석근 옮김, 주자의 자연학, 통나무, 1998, 35-36쪽

있으며 그것이 땅이다.²⁷⁾ 그리고 하늘은 그 바깥을 돌고 있다고 생각했다. 천체를 맷돌과 참외에 비유하여 설명한 아래 내용은 관찰자 입장에서 묘사한 것으로 素朴하면서도 論理的이다.²⁸⁾

地球는 自轉 외에 公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각에 관측하면 恒星은 하루에 일도씩 서쪽으로 나아가고, 恒星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거꾸로 太陽이 동쪽으로 하루에 일도씩 나아간다. 1년 후에 恒星과 太陽이 서로 만나게 된다. 地球의 自轉에 상쇄되어 太陽의 회전은 恒星의 회전보다 1회 적게 된다. 이를 전통적으로 ‘左旋右行’이라고 하며 儒家의 공인된 학설로서 오랫동안 天文學者들이 애용한 右行說이다. 이에 左旋說으로써 반기를 든 이가 張橫渠이며²⁹⁾ 朱子는 張橫渠의 이론을 계승하였다.³⁰⁾ 左旋說은 夏曆에서부터 주장되었다고 하지만, 張橫渠와 朱子에 의해 부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의 右行說과 대립해왔다. 左旋說에 대하여 具萬玉의 평가와 같이 人間學에 自然學을 중속시키는 이론이었다.³¹⁾

人間과 自然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치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左旋說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간략하게나마 朱子의 左旋說을 채택하고 있는데,³²⁾ 이 또한 朱子의 의도와 같은 입장에서 자연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許浚의 宇宙 構造論 中, 오늘의 시각에서도 適當한 理論은 발전시키고, 科學 技術의 발달에 힘입어 얻은 새로운 知識은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러한 誤謬에 대하여 外面하는 경향이 있었다. 韓醫學은 大宇宙와 小宇宙의 交感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大宇宙의 實體를 보다 정확하게 把握하고 그에 따라 小宇宙의 영향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3) 宇宙論 小結

許浚은 宇宙論이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醫學과 密接한 關聯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韓醫學이 天人相應을 基本 前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宇宙 發生은 一氣에 의하여 始作되며 太易, 太初, 太始, 太素 등의 단계를 거쳤다. 太易에서 氣가 드러나는 것을 太初라 하며, 氣에 의하여 形이 드러나는 것을 太始라 하며, 質을 갖추는 것을 太素라 한다. 形質이 갖추어지면 五行이 운행되며 小宇宙가 형성된다. 陰陽과 五行의 작용이 이와 더불어 설명된

26) 許浚, 앞의 책, 天地運氣: 黃赤道, 330쪽

27) 1915년 독일 A.L.베게너의 대륙이동설과 영국 A.홀스의 열대류설은 1960년대와 70년대 地球科學의 革命期를 거치면서 사실로 입증되었고 판구조론으로 정립되었다.

28) 許浚, 앞의 책, 天地運氣: 南北極, 330쪽

29) 야마다 케이지, 앞의 책, 62-67쪽
장재, 장운수 옮김, 정몽, 책세상, 2002, 23-24쪽

30) 허탁 이요성 역주, 앞의 책, 151-155쪽

31) 具萬玉, 朝鮮後期 科學思想史 研究 I, 헤안, 2004, p70

32) 許浚, 앞의 책, 天地運氣: 黃赤道, 330쪽

다. 그리고 宇宙는 循環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消息을 되풀이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直線的이고 目的論的인 西歐의 認識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21세기 환경보전을 위한 새로운 代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宇宙 構造論은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잘못된 假定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誤謬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으나, 당시의 科學技術은 태양, 달, 그리고 각 항성과 행성의 相對的 運動을 매우 소상하게 파악하여 節氣, 日蝕, 月蝕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宇宙論은 認識의 基底이다. 특히 天人相應과 小宇宙論 등과 같이 人體와 自然은 서로 응하고 인체는 自然의 縮小版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 동아시아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그런 연고로 朱子는 宇宙論을 완성하려고 노력하였다.

17세기 이후 西洋의 宇宙論이 전래되면서 처음에는 그 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³³⁾ 일부 과학기술을 제외하고 당시 서양의 認識論이 동양을 따라올 수 없는 상태였다. 대체로 中世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 마녀사냥이 16세기, 17세기에 극성을 부렸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³⁴⁾ 가장 중요한 曆法에서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충격은 基底를 흔들었다. 宇宙論이 의학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하여도 韓醫學이 通體와 部分의 調和를 기본으로 삼는 학문일진대, 認識論 統合을 위하여 宇宙論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2. 環境論

대체로 環境論에서는 天文, 氣象 그리고 地理를 다루고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五運六氣에 대하여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다. 五運六氣의 太過 不及에 따라 그 해의 기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疫病 등 유행병이 돌기 때문이다. 天文과 관련하여 歲運氣, 四時, 晝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상 현상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六氣이다. 六氣 즉 風, 寒, 暑, 濕, 燥, 火는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자연의 기운이다.

地理는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地理的 要件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東醫寶鑑』 곳곳에 이를 다루고 있다.

(1) 歲運氣

그 해의 기후는 運氣學說에 의거하여 설명된다.³⁵⁾ 運은 木, 火, 土, 金, 水 五運을 말하

33) 具萬玉, 朝鮮後期 科學思想史 研究 I, 혜안, 2004, p182

34) 주경철, 문화로 읽는 세계사, 사계절, 2005, 189-196쪽

35) 金完熙, 한의학원론, 성보사, 1999, 3쇄, 運氣學說의 기본적인 이론과 설명은 제 2장 '天人合一과 運氣'를 참조하였다.

며, 氣는 風, 寒, 暑, 濕, 燥, 火 六氣를 말한다. 歲運은 大運, 主運, 客運으로 나누어지는데, 天干을 배합하여 自然界 氣候와 人間 臟腑의 변화를 추측할 수 있다. 大運은 甲乙년을 木에, 丙丁년을 火에, 戊己년을 土에, 庚申년을 金에, 壬癸년을 水에 배정하여,³⁶⁾ 일년 전체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한다. 主運은 한 運季의 시간이 73일 5각이 되도록 1년을 다섯 運季로 나누어 大寒日부터 木, 火, 土, 金, 水를 배정하여, 각 계절의 일반적인 변화 상황을 설명한다. 客運은 主運과 마찬가지로 한 運季의 시간이 73일 5각이 되도록 1년을 다섯 運季로 나누어 大寒日부터 시작하는데, 初運은 當該年度 大運에 따라 확정된 후 五行相生 순에 따라 배정하여, 각 계절의 특수한 변화 상황을 설명한다.

六氣는 三陰三陽을 위주로 12地支에 결합하여 매년 기후의 일반 변화와 특수 변화를 설명하고 추산하게 한다. 主氣와 客氣로 나뉘어 있으며, 主氣는 常規를 밝히고 客氣는 變化를 추측하게 한다. 主氣는 1년 24節氣를 六氣六步로 나누고 大寒日부터 계산하여 4節氣 즉 60일 87.5각을 1步로 하여 厥陰風木, 少陰君火, 少陽相火, 太陰濕土, 陽明燥金, 太陽寒水를 차례로 배정한다.³⁷⁾ 主氣는 매년 일정한 데 반하여 客氣는 매년 변한다. 6步로 나누는 것은 같으나 時令을 관장하는 司天之氣를 三氣로 하여 先後를 배정한다.

하늘의 六氣와 땅의 五行이 서로 配合되어 30년의 운수가 나오고 이것을 다시 뒤섞이어 60년 주기의 변화가 일어난다.³⁸⁾ 天干 10개와 地支 12개가 상호 배합되어 60甲子가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60년 週期는 지난 세기 초의 연구인 바이오리듬에서도 나타난다.³⁹⁾

이를 종합한 것이 『六十年客氣旁通圖』이다.⁴⁰⁾

六十年客氣旁通圖						
	厥陰 主初氣	少陰 主二氣	少陽 主三氣	太陰 主四氣	陽明 主五氣	太陽 主終氣
子午年 (少陰)	太陽 客	厥陰 客	少陰 客	太陰 客	少陽 客	陽明 客
	寒氣切冽, 霜雪水冰	爲風溫雨, 雨生羽虫	大暑炎光	大雨霖注, 零雨雷電	溫風乃至, 萬物乃榮	燥寒勁切
丑未年 (太陰)	厥陰 客	少陰 客	太陰 客	少陽 客	陽明 客	太陽 客
	大風發榮, 兩生毛虫	天下疵疫, 以正得位	雷雨電電	炎熱沸騰	大涼燥疾	大寒凝冽
寅申年 (少陽)	少陰 客	太陰 客	少陽 客	陽明 客	太陽 客	厥陰 客
	熱風傷人, 時氣流行	時雨	大暑炎光, 草萎河乾	清風霧露	早寒	寒風飄揚, 雨生鱗虫

36) 許浚, 앞의 책, 天地運氣: 五音大小 - 五運紀運, 333 - 334쪽

37) 許浚, 앞의 책, 天地運氣: 交六氣時日, 主氣, 客氣, 332 - 333쪽

38) 許浚, 앞의 책, 天地運氣: 陰陽相錯, 333쪽

39) 1906년 독일 Wilhelm Fliess의 Biorhythm에 대한 연구: Physical rhythm은 23일 주기, Sensitivity rhythm은 28일, Intellectual rhythm은 33일 주기로 변하며 이것들은 58년에서 61년 마다 한번씩 일치한다고 한다.

40) 許浚, 앞의 책, 天地運氣: 六十年客氣旁通圖, 337쪽

卯酉年 (陽明)	太陰 客	少陽 客	陽明 客	太陽 客	厥陰 客	少陰 客
	風雨凝陰, 不散	大熱早行, 疫癘乃行	涼風間發	寒雨害物	涼風大作, 雨生介虫	蟄虫出見, 流水不冰
辰戌年 (太陽)	少陽 客	陽明 客	太陽 客	厥陰 客	少陰 客	太陰 客
	爲瘟疫至	溫涼不時	寒氣間至, 熱爭冰雹	風雨摧拉, 雨生倮虫	秋氣濕熱, 熱病時行	凝陰寒雪, 地氣濕
巳亥年 (厥陰)	陽明 客	太陽 客	厥陰 客	少陰 客	太陰 客	少陽 客
	清風, 霧露蒙昧	寒雨間熱	熱風大作, 雨生羽虫	山澤浮雲, 暴雨溽濕	時雨沉陰	冬溫蟄虫, 流水不冰

運氣는 非科學的이라 하여 외면당했으나, 四柱, 風水 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듯이 運氣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 중요한 것은 臨床에서 아직도 有用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 四時

예로부터 太陰曆을 사용하여 年, 月, 日, 時를 정하였다고 알려졌지만 太陽曆 또한 사용되었다. 太陽曆 이용의 대표적인 증거는 24節氣이다. 節氣는 季節⁴¹⁾을 알려주는 주요한 지표로써 陰이 極에 달한 冬至는 밤이 가장 길 때이고, 陽이 極에 이른 夏至는 낮이 가장 길 때이다. 陰陽이 각각 半을 차지하는 春分과 秋分은 밤낮의 길이가 같다.⁴²⁾ 四時는 24節氣를 한 계절에 6개씩 배분하여 四季節로 나눈 것이다. 立春에서 穀雨까지가 봄이고, 立夏에서 大暑까지가 여름이며, 立秋에서 霜降까지가 가을이고, 立冬에서 大寒까지가 겨울이다. 예로부터 사용되었던 24節氣와 四時는 모두 太陽曆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四時는 陰陽의 昇降결과이며 음양 승강은 태양의 운동과 관련이 깊다. 태양의 운동으로 계절이 분명히 나누어지지만 해마다 기후가 다른 것은 六氣가 四時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앞 ‘歲運氣’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해의 運氣에 따라서 기후의 대강이 결정된다.

봄은 만물이 生하는 계절이며, 겨울의 추위를 누르고 솟구쳐야 하므로 陰中之陽이 되며, 인체에서는 肝에 해당되므로 肝에 속하는 物類가 모두 봄에 속한다.⁴³⁾ 여름은 만물이 長하는 계절이며, 봄의 生한 기운을 더욱 펼치므로 陽中之陽이 되며, 인체에서는 心에 해당되므로 心에 속하는 物類가 모두 여름에 속한다.⁴⁴⁾ 가을은 만물이 收하는 계절이며, 여름의 長한 기운을 거두어들이므로 陽中之陰이 되며, 인체에서는 肺에 해당되므로 肺에 속하는 物類가 모두 가을에 속한다.⁴⁵⁾ 겨울은 萬物이 藏하는 계절이며, 가을의 燥한 기운을

41) 季節은 四季와 24節氣를 의미한다.

42) 許浚, 앞의 책, 天地運氣: 四時氣候, 332쪽

43) 許浚, 앞의 책, 肝臟: 肝屬物類, 139쪽

44) 許浚, 앞의 책, 心臟: 心屬物類, 141쪽

45) 許浚, 앞의 책, 肺臟: 肺屬物類, 145쪽

감추게 되므로 陰中之陰이 되며, 인체에서 腎에 해당되므로 腎에 속한 物類는 모두 겨울에 속한다.⁴⁶⁾ 四季 혹은 長夏는 脾가 주관하며, 脾에 속한 物類는 모두 四季 혹은 長夏에 속한다.⁴⁷⁾

(3) 晝夜

金完熙의 『한의학원론』에 따르면, 陰陽의 屬性은 天과 地, 낮과 밤, 春夏와 秋冬, 男과 女, 熱과 寒, 輕과 重, 밝음과 어둠, 上昇과 下降, 外向과 內向, 運動과 停止로 분류된다고 하였다.⁴⁸⁾ 원래 陰陽은 햇빛의 유무에서 유래된 개념이니⁴⁹⁾, 晝夜는 陰陽을 대표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周易, 繫辭上傳』에서도 易의 廣大함을 설명하면서 陰陽을 日月에 비유하고 있다.⁵⁰⁾ 日月은 晝夜를 대표하니, 바로 陰陽을 晝夜에 비유했다고 볼 수 있다.

晝夜는 陰陽을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四時陰陽은 萬物の 根本이며, 萬物の 시작과 끝이요, 삶과 죽음의 근본이다’⁵¹⁾라고 했을 때, 陰陽은 晝夜를 의미한다. 밤낮과 季節은 만물의 근본이며, 만물의 시작과 끝이요, 삶과 죽음의 근본이라고 바꾸어 말하여도 틀림이 없다. 天地의 기운은 낮에는 陽氣가 성하고 밤에는 陰氣가 성하다. 陽은 펼쳐나가는 기운을 말하고 陰은 수렴하는 기운을 의미하기도 한다.⁵²⁾ 그러므로, 陽氣가 성한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陰氣가 성한 밤에는 잠자리에 들게 된다.⁵³⁾

晝夜를 좀 더 세분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낮을 陽, 그리고 밤을 陰이라고 크게 나눈 후 이를 세분하여 해 뜰 무렵부터 한낮까지를 陽中之陽이라하며,⁵⁴⁾ 氣厚하므로 熱浮長한다.⁵⁵⁾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되며, 인체에서는 心臟에 해당한다.⁵⁶⁾ 한낮에서 해 질 무렵까지는 陽中之陰이라하며, 氣薄하므로 燥降收한다.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되며, 인체에서는 肺臟에 해당된다. 해 질 무렵부터 한밤중까지를 陰中之陰이라하며, 味厚하므로 寒沈藏한다. 계절로는 겨울에 해당되며, 인체에서는 腎臟에 해당된다. 한밤중에서 해 뜰 무렵까지를 陰中之陽이라하며, 味薄하므로 風升生한다. 계절로는 봄에 해당되며, 인체에서는 肝臟

46) 許浚, 앞의 책, 腎臟: 腎屬物類, 147쪽

47) 許浚, 앞의 책, 脾臟: 脾屬物類, 142쪽

48) 金完熙, 한의학원론, 성보사, 1999년 3쇄, 44쪽

49) 金完熙, 한의학원론, 성보사, 1999년 3쇄, 38쪽

50) 明文堂編輯部, 原本周易(坤), 明文堂, 1999 重版: 繫辭上傳, 1021쪽
‘廣大配天地, 變通配四時, 陰陽之義配日月, 易簡之善配至德’

51) 許浚, 앞의 책, 身形: 四氣調神, 74쪽

52) 許浚, 앞의 책, 眼: 眼花, 224쪽

53) 許浚, 앞의 책, 夢: 陽氣之出入爲寤寐, 115쪽

54) 許浚, 앞의 책, 吐: 取吐法, 353쪽

55) 許浚, 앞의 책, 湯液序例: 氣味升降, 675쪽

56) 許浚, 앞의 책, 鍼灸: 五臟六腑有疾當取十二原, 778쪽

에 해당된다.

이렇게 세분하여 살펴면, 晝夜는 陰陽일 뿐만 아니라 四時를 포함하고 있다. 晝夜는 작은 순환이요, 四時는 좀 더 큰 순환이며, 삶은 보다 큰 순환이며, 우주의 消息은 가장 큰 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인체의 臟腑도 陰陽과 四時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야와 사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4) 六氣

六氣는 風, 寒, 暑, 濕, 燥, 火를 말하며, 人體에 外邪로 작용할 때는 六淫이라 표현된다. 六氣는 天地自然의 기운을 대표한다. 歲運氣에 의하여 일 년 단위의 氣候를 개략적으로 파악했다면, 六氣는 地理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세부적인 氣候를 나타낸다.

三陰三陽은 天의 六氣로 標가 되고, 木火土金水는 地의 五行으로 本이 된다.⁵⁷⁾ 六氣는 바로 三陽三陰을 일컫는 말이며, 현상으로 나타나는 바가 風寒暑濕燥火인 것이다. 太陽寒水, 陽明燥金, 少陽相火, 太陰濕土, 少陰君火, 厥陰風木 등이 그것이다. 運氣學說에 의해서 當該年度의 運氣를 파악하고자 할 때 六氣가 이용되기도 한다.

風은 升生하고 味薄이므로 陽中之陰이며,⁵⁸⁾ '善行數變'⁵⁹⁾으로 그 특성이 표현된다. 대기에서 움직이는 것은 모두 風으로 나타난다. 대기가 가벼이 움직이면 바람이라 하여 만물이 자라는데 도움을 준다.

寒은 沈藏하고 味厚이므로 陰中之陰이며,⁶⁰⁾ 운동성을 저하시킨다. 熱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육기 중에는 火와 대조를 이룬다. 움직임 측면에서 보면 風과 대조가 되나 항상 그렇지 않다.

暑는 여름 더위를 말한다. 夏至이후 熱病을 暑라고 하며 이때는 少陽 相火가 지배한다.⁶¹⁾ 더위가 치성하기 때문에 熱이 많고 건조하며 氣를 많이 손상시킨다.

濕은 化成하는 성질이 있으며 주로 장마철에 성하다. 그 외에도 바닷가, 강가, 호수가 등 큰물이 가까이 있는 지형이나 낮은 지형, 그리고 東南方에 濕이 성하다.⁶²⁾

燥는 收降하고 氣薄하므로 陽中之陰이며⁶³⁾ 가을에 성하다. 風熱이 水濕을 勝하면 燥하게 된다.⁶⁴⁾ 燥는 邪氣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火는 熱로써 발생되는데 熱은 浮長하고 氣厚하므로 陽中之陽이다.⁶⁵⁾ 君火와 相火 두 가

57) 許浚, 앞의 책, 五運六氣: 論標本, 333쪽

58) 許浚, 앞의 책, 湯液序例: 風升生, 675쪽

59) 許浚, 앞의 책, 用藥: 風熱燥濕寒治法, 351쪽

60) 許浚, 앞의 책, 湯液序例: 寒沈藏, 676쪽

61) 許浚, 앞의 책, 暑: 暑者相火行令也, 409쪽

62) 許浚, 앞의 책, 濕: 濕氣侵人不覺, 413쪽

63) 許浚, 앞의 책, 湯液序例: 燥收降, 676쪽

64) 許浚, 앞의 책, 燥: 燥因血少, 416쪽

지가 있으며, 자연에서는 늦봄에서 여름까지 火가 작용한다. 여름 더위인 暑와 유사하나, 인체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많이 달라진다.

六氣는 自然이 人間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종합한 것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外邪로 인식된다. 六氣 각 기운의 盛衰는 歲運氣, 四時, 晝夜, 地理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六氣가 調和를 이루면 和暢한 氣候가 되어 천지만물이 그 은혜를 입지만, 均衡이 깨지면 氣運이 偏在되면서 邪氣로서 작용한다.

(5) 地理

‘하늘은 西北으로 기울고 땅은 東南쪽이 부족하다’⁶⁵⁾라고 하는 것은 天文과 地理의 관측결과이다. 이에 대하여는 『淮南子』의 설명이 가장 간략하면서도 적절한 것 같다. 하늘이 西北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日月星辰이 움직이고, 땅은 東南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쪽으로 흘러간다. 『東醫寶鑑』에서는 위의 世界觀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⁶⁷⁾

東南과 西北의 二分法에서 벗어나 東西南北 그리고 中央으로 나누어 地理的 差異와 生活를 설명하기도 한다.⁶⁸⁾

地理는 인간의 환경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지역적 특성에 의하여 生活相이 결정되며 인체의 구조 또한 변화한다.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形을 키우는 반면,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더위를 이기기 위하여 氣를 키운다. 西北人은 대체로 살찌고 東南人은 대체로 마른 것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이다. 이러한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이 五味이다. 三陽三陰은 하늘의 六氣로 標에 해당한다고 하면, 木火土金水는 地의 五行으로 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地의 五行은 五味로 나타나며 五味는 입을 통하여 사람의 臟腑를 길러준다.

추운 산간 지방에 사는 사람은 추위 때문에 形이 상하기 쉽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나는 기름진 음식으로 평소에 形을 기른다. 이것이 지나쳐 腸胃에 濕熱이 쌓이면 山間 地方에 나는 메밀로 풀어준다. 따뜻한 平野地帶에 사는 사람들은 더위 때문에 氣를 상하기 쉽다. 따라서 담백한 음식으로 평소에 氣를 키운다. 쌀은 氣를 키우는 대표적인 곡물이고 東南亞에서 주로 즐겨 먹는 것은 氣를 키우기 위함이다. 氣를 너무 키워 鬱滯되면 더운 지방에 나는 香料, 桂皮, 砂仁 등 향이 강한 약물이나 辛味로 풀어준다.

우리가 먹는 飲食은 地理的으로 구속될 때 地理的 與件에 의한 不均衡을 해소할 수 있

65) 許浚, 앞의 책, 湯液序例: 熱浮長, 675쪽

66) 劉安, 淮南子, 上海古籍出版社, 1993, 4차인쇄: 天文訓, 27쪽
‘天傾西北, 故日月星辰移焉. 地不滿東南, 故水潦塵埃歸焉.’

67) 許浚, 앞의 책, 天地運氣: 天地不足之方, 331쪽

68) 許浚, 앞의 책, 天地運氣: 四方異宜, 331쪽

다. 하지만, 農作物의 地域間的 移動이 수월하고 輸出入 또한 수월한 요즘은 地理的 興件을 개선할 食物물 섭취가 어려우므로 健康을 잃기 쉽다.

3. 自然과 人間

自然과 人間은 분리될 수 없다. 自然에 대한 洞察은 人類 文明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自然에 대한 知覺的 洞察의 過程은 人間의 精神的 過程이며 이는 文明의 밑거름이 되었다. 칼 카우츠키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한다.⁶⁹⁾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許浚의 自然觀은 人間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自然은 人間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人間은 自然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相應關係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許浚의 自然觀은 自然과 人間의 상호 영향이 가장 주된 關心事項을 알 수 있다. 상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共生의 세계이다. 이제까지의 자연관 논의는 바로 이 章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1) 우주 아날로지 [天人相應]

韓醫學은 天人相應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宇宙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人間이 宇宙를 닮았으므로 서로 통하는 바가 있다는 것으로, 인간을 小宇宙라고 한다.⁷⁰⁾ 이는 相關의 思考가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文明의 시작에서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생각되며, 서양도 그러했으며 ‘우주 아날로지’라고 부른다.⁷¹⁾ 단지 西洋에서는 17세기 중엽이후 自然科學의 지배가 상관적 사고와 우주 아날로지를 원시적 형식으로 몰락시킨 반면, 韓醫學에서는 陰陽五行說과 함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아직도 활용하고 있다.

生命의 根源은 宇宙의 根源과 같다는 측면에서,⁷²⁾ 身形門 제일 처음인 ‘形氣之始’에서 宇宙와 生命의 형성 단계를 氣, 形, 質이 생기는 시기에 따라 太易, 太初, 太始, 太素 등 넷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⁷³⁾ 이외에도 인간의 呼吸은 천지의 潮水를 닮았고,⁷⁴⁾ 사람의 마음은 北斗七星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⁷⁵⁾

위와 같이 천지와 인간이 닮았을 뿐만 아니라 인체의 형성 자체가 천지자연으로 부터 稟賦 받았다고 한다. 天地의 精氣가 변화하여 만물의 형체를 이루듯이 天地의 德이 합쳐져야 사람이 생긴다고 하였으며,⁷⁶⁾ 人體는 천지자연과 마찬가지로 地, 水, 火, 風 즉 四大

69) 베르너 슈타크, 임영일 번역, 知識社會學, 한길사, 1983, 297쪽

70) 우주 아날로지는 老子 『道德經, 25章』에도 보인다.
王卡點校,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中華書局出版, 1997 2차인쇄, 101-103쪽

71) 조센 니담. 中國의 科學과 文明 II, 을유문화사, 406쪽 - 412쪽

72)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앞의 책, 21쪽

73) 許浚, 앞의 책, 身形: 形氣之始, 72쪽

74) 許浚, 앞의 책, 身形: 形氣定壽夭, 73쪽

75) 許浚, 앞의 책, 身形: 人心合天機, 75쪽

要素로 구성되었다고 한다.⁷⁷⁾

인간의 壽命 또한 天命에 달렸는데, 先天의 기운인 元氣는 부모뿐만 아니라 天地로부터 받았으므로,⁷⁸⁾ 아이를 受胎할 때는 천지간의 기운이 좋을 때를 골라야 한다.⁷⁹⁾ 先天의 기운뿐만 아니라 後天의 기운도 천지로부터 滋養받는다. 天氣 즉 五氣는 코와 喉를 통하고, 地氣 즉 五味는 입과 咽을 통하여 인체를 자양하므로, 天地와 人體가 서로 상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⁰⁾ 특히, 폐에 24개의 구멍이 行列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 것은⁸¹⁾ 24節氣에 상응하는 것으로 肺가 呼吸을 통하여 自然과 일체됨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西洋에서 우주 아날로지가 舊時代의 遺物로 자리매김된 것은 自然科學의 발달로 인한 것이다. 17세기 중엽부터 自然科學이 발달되자, 人間은 自然을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科學은 學問의 帝王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른다. 이전까지 學問의 帝王이라 불리었던 哲學조차도 과학이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붙이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는 神性的의 몰락뿐만 아니라 人性的의 몰락을 의미한다. 더 이상 神性이나 人性이 간여할 부분이 없고, 모든 것은 科學으로 설명된다고 믿었다. 이러한 인식은 20세기말에 이르러서야 변하기 시작한다.

우주 아날로지의 마지막에는 養生術이 있다. 천지의 기운에 조화를 이루어 인체를 최적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東醫寶鑑』에서는 養生을 매우 중시하여⁸²⁾ 總論이라고 할 수 있는 ‘身形門’에서 다루고 있다. 道家의 修養을 중시한 것을 두고 김호는 유불선 삼교 회통을 주장하고,⁸³⁾ 다른 이는 道家와 儒家의 合一을 주장하고 있으나, 許浚은 性理學的의 養生觀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⁸⁴⁾ 이는 神仙思想에서 출발한 우리 민족의 문화가 오랜 分化와 變形을 거쳐 다시 合一의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⁸⁵⁾

(2) 국가 아날로지

國家 아날로지는 身體의 모든 부분을 국가 기관에 일대일 대응하는 사고방식으로 우주

76) 許浚, 앞의 책, 身形: 胎孕之始, 72쪽

77) 許浚, 앞의 책, 身形: 四大成形, 72쪽

拙文 ‘東醫寶鑑과 道家思想, 경희대 의학교실, 2005’ 과 ‘金斗鍾의 上世醫學史 批判, 경희대 의학교실, 2005’ 참조 바람.

78) 許浚, 앞의 책, 身形: 壽夭之異, 73쪽

79) 許浚, 앞의 책, 婦人: 陰陽交合避忌, 605쪽

80) 許浚, 앞의 책, 鼻: 鼻爲玄牝之門戶, 238쪽

王卡點校,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中華書局出版, 1997 2차인쇄, 21 - 22쪽

許浚, 앞의 책, 神: 五味生神, 94쪽

81) 許浚, 앞의 책, 肺: 肺形象, 145쪽

82) 정행규, 양생에 관한 문헌연구-동의보감을 중심으로, 경희대 원전의사학 박사학위논문, 1995

83)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2000, 126-150쪽

84) 拙文, 東醫寶鑑과 道家思想, 경희대 의학교실 논문, 2005, 2-5쪽

85)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11쪽, 17쪽, 23-24쪽

아날로지와 같이 相關的 思考에서 출발하였다. 『東醫寶鑑』에서 天人相應을 기본으로 하는 우주아날로지를 바탕으로 하듯이, 국가아날로지 또한 인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⁸⁶⁾

우주 아날로지는 17세기 科學의 발달로 인하여 西歐에서 사라진 반면, 국가 아날로지는 아직도 신중하게 사용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플라톤이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솔즈베리 존(John of Salisbury)의 폴리크라티쿠스(Policraticus, 1159)가 최초로 국가 아날로지를 세심하게 대입하였다.⁸⁷⁾

『東醫寶鑑』에서 인용하였듯이, 동아시아에서는 葛洪의 『抱朴子, 4세기 초』에서 이미 매우 발달된 내용의 국가 아날로지를 보여준다. 반면, 西歐에서는 12세기 솔즈베리 존에 이르러서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국가 아날로지가 나타나 대조가 된다.

우주 아날로지와 국가 아날로지는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鍊金術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고 니담은 주장하고 있다.⁸⁸⁾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道家思想에서 養生術이 파생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老子的 『道德經』을 養生術의 最高 經典으로 존송하여 왔다. 하지만, 養生術은 앞선 鍊金術을 가진 일단의 組織이 보급한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⁸⁹⁾ 馬王堆를 비롯한 몇몇의 무덤에서 고대 문헌들이 발굴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통설을 깨는 새로운 학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鍊金術에 앞선 기술을 보유한 일단의 집단이 養生術을 개발하였고, 그 養生術은 宇宙와 人間의 相關性에 기초하고 있다. 道家思想은 이와 같은 초기 養生術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이런 논의는 古代史를 복원하는데 많은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문헌을 참고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적어도 神市時代부터 神道思想 혹은 神仙思想이 있어왔고 앞선 鍊金術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⁹⁰⁾ 이를 위의 연구와 결부하면, 神仙思想과 앞선 鍊金術을 지니고 있던 우리 민족이 養生術을 개발하였고 이것이 중국으로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문헌에 보이는 우주 아날로지와 국가 아날로지도 우리 민족의 神仙術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⁹¹⁾

(3) 歲運氣과 人體

運氣는 醫師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自然과 調和를 이루려면 그 해의 氣候를 미리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氣候를 미리 알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86) 許浚, 앞의 책, 身形: 人身猶一國, 73쪽

87) 조셉 니담. 中國의 科學과 文明 II, 을유문화사, 412쪽 - 413쪽

88) 조셉 니담. 中國의 科學과 文明 II, 을유문화사, 413쪽 - 419쪽

89) Donald Harper, The bellows analogy in Laozi V and Warring states Macrobiotic Hygiene, Early China 20, 1995, 381-391

90) 김두중, 앞의 책, 7쪽 (陶弘景의 本草經集註를 인용하여 고구려인의 우수한 鍊金術을 소개) 23쪽 (道敎의 信仰의 淵源으로 東方地域 즉 古朝鮮을 소개)

91) 拙文, 김두중의 상세의학사 비판, 경희한의대 의사학교실 논문, 2005, 6-8쪽

이므로 運氣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다스릴 수 있게 된다. 92)

症狀이 같은 병을 여러 사람이 앓는 것은 運氣에 의한 병이다. 여기에는 痢疾, 콜레라, 감기와 같은 傳染病도 포함될 수 있고, 脚氣 등 전염되지는 않으나 여러 사람이 걸리는 병도 포함될 수 있다. 運氣의 이상 상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은 瘟疫이라고 한다. 瘟疫은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시되었다.

전래된 전염병이든 자생 전염병이든 運氣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四季節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계절이 상도를 벗어나면 병이 생기는 것이다. 이를 세균학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運氣는 60년을 주기로 氣候가 변화함을 나타내는데, 許浚의 運氣學說은 이를 보다 간략하게 하여 육 년단위로 변화는 ‘六十年客氣旁通圖’로 집약된다.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많으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4) 四時와 人體

人體 중에서 自然과 항상 交感이 일어나는 것은 코로 대표되는 呼吸器이다. 玄府를 제외하고 남자는 9개의 구멍이 있고 여자는 10개의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은 인체의 내부와 외부가 서로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玄府를 포함하여 모든 구멍은 開閉가 가능하다. 단, 코로 대표되는 呼吸器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체에서 자연과 끊임없이 교감이 일어나는 것은 코 밖에 없다. 코를 통하여 하늘과 교통한다. 코 다음으로 自然과 交感하는 것은 입이다. 입을 통하여 음식을 먹으며 그 음식은 바로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호흡을 중시하는 것은 天氣 따라서 『東醫寶鑑』에서는 코와 입을 ‘玄牝의 門戶’라고 하였다.⁹³⁾ 계절에 따라 天氣의 성쇠와 흐름이 다르므로 호흡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한다.⁹⁴⁾

四時的 變化는 코, 肺, 玄府, 大腸, 肛門 등으로 交感되어 人體에 영향을 미친다. 外氣와 직접적으로 疏通되는 것 외에 五臟은 순차적으로 四時를 주관한다. 봄은 陰中之陽으로 生發하는 계절이다. 따라서 五臟 중에서 陰中之陽에 해당하는 肝이 봄을 주관한다. 여름은 陽中之陽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다. 五臟 중에서 陽中之陽에 해당하는 心이 여름을 주관한다. 가을은 陽中之陰으로 結實의 계절이다. 五臟 중에서 陽中之陰에 해당하는 肺가 가을을 주관한다. 겨울은 陰中之陰으로 封藏의 계절이다. 五臟 중에는 陰中之陰에 해당하는 腎이 겨울을 주관한다. 陰中之至陰에 해당하는 脾는 四季 혹은 長夏를 주관한다.

人體는 大自然과 항상 교감하고 있으므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계절에 따라 양생하는 방법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陰陽과 四時는 萬物의 시작과 끝이고 生死의 根本이

92) 許浚, 앞의 책, 天地運氣: 運氣之變成疫, 337쪽

93) 許浚, 앞의 책, 鼻: 鼻爲玄牝之門戶, 238쪽

94) 許浚, 앞의 책, 雜方: 服六天氣法, 595쪽/ 氣: 六字氣訣, 94쪽

다'라고 하였다.⁹⁵⁾ 四時 養生法에 대하여 『東醫寶鑑』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설명하고 있다.⁹⁶⁾

人體는 天地自然의 기운을 항상 교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四時 變化는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四시에 따라 養生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疾病이 생기게 된다. 疾病이 생겼을 경우에도 四시에 맞추어 치료해야 한다. 湯藥 뿐만 아니라 鍼灸도 四시의 기운에 맞게 치료해야 한다.

(5) 晝夜와 人體

앞에서 거론하였듯이, 四時陰陽은 萬物의 시작과 끝이고 生死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陰陽은 晝夜에 의해서 구분되는 개념이다.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자리에 드는 행위가 바로 음양을 표현한 것이다. 밤낮과 계절의 법도에 맞추어 사는 것이 바로 만물의 시작과 끝이고 생사의 근본이다. 밤은 陰이 주관하고 낮은 陽이 주관한다.

五臟도 晝夜를 나누어 주관한다. 일출에서 정오까지는 陽中之陽에 해당되며 心이 작용한다. 정오에서 일몰까지는 陽中之陰에 해당되며 肺가 주관한다. 일몰에서 자정까지는 陰中之陰에 해당되며 腎이 주관한다. 자정에서 일출까지는 陰中之陽에 해당되며 肝이 주관한다. 四季는 脾가 주관한다.⁹⁷⁾ 각기 나누어 주관한다는 의미는 해당되는 시각에 그 臟器가 힘을 쓰며 臟器에 이상이 있으면 병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몸의 陽氣도 왼쪽다리에서 시작하여 太陽의 움직임을 따라 일주한다. 正午에는 정수리에 다다르고 저녁때가 되면 오른쪽 다리로 내려간다. 陽氣는 몸의 활동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陽氣가 활동하는 낮에는 사람의 활동이 순조롭고 밤에는 그렇지 못하다. 만약 밤에 억지로 활동하면 몸이 힘들어진다.⁹⁸⁾

밤낮이 인체에 작용하는 것은 衛氣의 운행과 관련이 깊으며 대표적인 현상이 수면과 활동이다. 낮에는 衛氣가 陽分을 돌기 때문에 인체의 활동이 왕성할 수 있고, 밤에는 衛氣가 陰分을 돌기 때문에 인체가 활동하지 못하고 잠을 잔다.⁹⁹⁾

밤낮이 인체에 작용하므로 養生도 밤낮에 따라 달라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온몸의 氣를 원활하게 순환시키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는 氣를 안정시켜 血이 肝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¹⁰⁰⁾

晝夜는 陰陽을 대표하여 萬物의 根本이 되므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원시

95) 許浚, 앞의 책, 身形: 壽夭之異, 73쪽

Donald Harper, The bellows analogy in Laozi V and Warring states Macrobiotic Hygiene, Early China 20, 1995을 참조바람.

96) 許浚, 앞의 책, 身形: 四氣調神, 四時節宣, 74, 77쪽

97) 앞 '晝夜'에서 다루었다.

98) 許浚, 앞의 책, 氣: 氣爲衛衛於外, 86쪽

99) 許浚, 앞의 책, 夢, 陽氣之出入爲寤寐, 115쪽

100) 許浚, 앞의 책, 身形: 搬運服食, 按摩導引, 先賢格言, 75-76쪽

종교나 예술은 밤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晝夜는 인간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天地의 기운이 陰陽을 극적으로 나누는 것도 晝夜이다. 따라서 인체의 모든 리듬이 晝夜에 맞추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四時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養生의 기본은 晝夜의 法度에 맞추어 생활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四時養生이 있을 수 있다.

(6) 六氣와 人體

六氣, 風 寒 暑 濕 燥 火는 대표적인 外邪로 치부되고 있다. 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內因이 정형화되기 전에는 병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雜病篇 초두에 六氣를 언급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六氣가 疾病의 外因으로 인식되었는데 『東醫寶鑑』에서는 ‘内生六氣’ 개념이 정형화된다. 여기에는 ‘人體는 小宇宙’라는 개념과 ‘同聲相應 同氣相求’¹⁰¹⁾ 개념이 스며있다. 人體는 小宇宙이기 때문에 宇宙와 마찬가지로 六氣가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고, 같은 기운은 서로 부르므로 인체 내부에서 어느 한 기운이 성하면 바깥에 있는 같은 기운을 부르게 된다. 이것이 外因에 의한 병의 기전이다.

1) 風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

風의 특성은 ‘善行而數變’에 있다. 즉, 그 流動性이 심하고 變化가 많으며 또한 늘 다른 外邪와 합병하여 인체에 침범하므로 ‘風은 百病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東醫寶鑑』에서는 다양한 風證을 나열하고 있다. 머리에 풍사가 침입한 頭風證, 얼굴에 부스럼이 생기는 毒風, 허리가 송곳 찌르듯이 아픈 刺風, 간질 증세를 보이는 癇風, 증상을 모르는 頑風, 목에 얼룩 반점이 생기는 癰風, 현훈이 생기는 暗風,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瘡風, 코가 답답하고 눈이 실룩거리며 눈시울이 벌겍게 짓무르는 肝風, 입과 눈이 비뚤어지는 偏風, 팔다리 뼈마디가 끊어지는 것 같고 손발톱이 빠지는 筋風, 구역질을 많이 하는 脾風, 잘 걷지 못하는 酒風, 코가 메고 목덜미가 아픈 肺風, 잘 자지 못하는 膽風, 살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氣風, 귀에서 매미가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나고 陰部가 축축하며 가렵고 寒濕으로 脚氣가 생기는 腎風, 몸 한쪽을 쓰지 못하는 癱風, 손발이 오그라들어 떠는 瘼風, 水土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胃風, 風寒濕으로 가려운 虛風, 향문이 빠져나오면서 피를 쏟는 腸風, 현훈과 편두통이 있는 腦風, 큰소리를 치려고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賊風, 팔다리가 아픈 產風, 무릎이 망치모양으로 붓는 膝風, 健忘症이 있으면서 잘 놀라는 心風, 말이 잘 되지 않는 盛風, 팔뚝과 어깨죽지가 시큰거리면서 우리하게 아픈 髓風, 밤에 식은땀이 많이 나는 藏風, 陰囊이 축축하고 가려운 血風, 얼굴이 부어서 덩어리가 생기는 烏風, 피부에 벌겍거나 흰 반점이 생기거나 버짐이 생기는 皮風, 온 몸

101) 明文堂編輯部, 原本周易(乾), 明文堂, 1999 重版, 144쪽
許浚, 앞의 책, 用藥, 求屬之法, 350쪽

이 가려운 肌風, 몸에 腫毒이 생기는 體風, 大便이 굳어져서 잘 나오지 않는 肺風,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軟風, 눈동자가 커지는 綠風, 몹시 토하면서 靑盲이 되는 靑風, 양의 울음 같은 소리를 내는 虎風, 한 군데씩 물크러져 헌데가 생기는 大風 등이 있다.¹⁰²⁾

風의 성질을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風의 성질은 가볍고 浮揚하므로 인체의 上部나 肌表에 침범하기 매우 쉽다. 둘째, 風邪는 잘 돌아다니며 자주 변하기 때문에 그 疾病의 變化는 신속하여 關節이나 肌肉에 流注性 腫痛이 나타난다. 셋째, 風의 성질은 급하고 사나우며 躁動하여 사람을 갑자기 傷하게 하기 쉽다.¹⁰³⁾

人體가 風에 상하면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며 목소리가 가라앉는다. 또한 땀이 나면서 바람을 싫어하게 되는데 이는 風에 상한 대표적인 증상이다.¹⁰⁴⁾ 이외 邪氣의 強弱이나 인체의 어느 부위에 침범하였는지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2) 寒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

韓醫學에서는 六氣 중에서 寒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매우 이른 시기부터 寒에 상해 생긴 병증인 傷寒病에 관한 의학이 발달하였다. 韓醫學의 고전인 『內經』에서부터 시작하여 漢代의 張仲景은 傷寒論의 체계를 세웠으며, 이후 이 분야는 韓醫學의 가장 큰 분야로 성장하였다.¹⁰⁵⁾

寒邪에는 外寒과 內寒의 구분이 있다. 外寒이란 찬바람을 쐬거나 찬 것을 마시는 등 外部의 寒邪에 의해 야기된 것이며, 內寒이란 인체 스스로의 陽氣衰退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溫煦作用을 상실함으로써 ‘寒從中生’하게 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外寒과 內寒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인과관계가 있다. 陽虛한 사람은 外寒에 저항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寒邪에 쉽게 감촉되며, 外寒이 인체에 침범하면 인체의 陽氣를 손상시키므로 內寒을 형성한다. 外寒이든 內寒이든 寒邪에 감촉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全身적으로는 形寒, 怕冷, 四肢不溫, 面色蒼白暗滯, 喜溫, 脈遲 혹은 脈緊, 舌紅, 苔白滑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국부적으로는 腹冷, 關節冷痛 등이 나타난다.¹⁰⁶⁾ 寒邪는 風邪와는 달리 운동성을 극히 떨어뜨린다. 인체에 감촉하면 陽氣를 손상하므로 인체의 氣血 循環을 저하하여 장애를 일으킨다.

3) 暑가 人體에 미치는 影響

暑는 여름 더위로 相火의 작용이며, 夏至 이후에 성하다. 여름철에 더위를 먹으면 입과 치아로 들어와 心包絡의 經을 상한다. 그 증상은 답답해서 숨을 헐떡이고 말을 하지 못하

102)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앞의 책, 496-498쪽

103) 金完熙, 한의학원론, 成輔社, 1999 3쇄, 324 - 325쪽

104) 許浚, 앞의 책, 風: 傷風證, 369쪽

105)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앞의 책, 511쪽

106) 金完熙, 앞의 책, 329쪽

다가 안정되면 말이 많으며, 몸에 열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몹시 渴症이 나서 물을 찾으며, 頭痛 自汗이 있고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거나, 下血하고 黃疸이 되며 斑疹이 돋는다. 심하면 火熱이 金을 눌러 木이 평정되지 못해 痙攣이 일고 人事不省이 된다.¹⁰⁷⁾

『東醫寶鑑』에서는 暑門을 별도로 두어 暑病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暑病에는 몸에 熱이 나고 自汗이 있으며, 입이 마르고 얼굴에 때가 낀다. 傷暑의 증상은 얼굴에 때가 끼고 自汗이 있으며, 몸에 열이 나고 등이 시리며, 답답하고 몹시 渴症이 나며,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으며, 털이 서면서 惡寒이 있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霍亂이 있거나, 사지가 싸늘하지만 몸이 아프지는 않은 것이다. 中暑의 증상은 六脈이 침복하고 식은땀이 저절로 나며, 답답하여 죽을 것 같고 정신이 없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太陽中暈은 暑病이다. 發熱 惡寒이 있고 몸이 무거우며, 머리가 아프고 脈이 弦細 扞遲하며, 소변을 보면 오짝오짝하면서 털이 서며, 손발이 싸늘하고 조금만 일을 하면 열이 나며, 입을 벌리고 있으며 앞니가 마른다. 이때 땀을 내면 오한이 심해지고, 온침을 놓으면 발열이 심해지며, 자주 설사시키면 淋病이 심해진다.

暑病 중에 가만히 있다가 病을 얻은 것을 中暑 혹은 中暈이라 하고 움직이다가 病을 얻은 것을 中熱이라 한다. 中暑는 간혹 으스스한 집이나 큰 집에서 더위를 피하다가 생기는데, 반드시 頭痛, 惡寒이 있고 몸이 오그라들며, 四肢關節이 아프면서 가슴이 답답하며, 피부에 몹시 열이 나는데 땀이 없다. 中熱은 길가는 사람이나 농부가 햇볕에서 일을 하다가 생기는데, 반드시 頭痛으로 고생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며, 熱이 나는데 熱을 싫어하며, 피부를 눌러보면 심하게 熱이 나며, 반드시 渴症이 심하여 물을 찾으며, 땀이 몹시 나고 움직일 기운이 없다.

暑病은 또한 冒暑, 中暑, 傷暑의 3가지 증상이 있고, 여름 감기를 暑風이라 한다. 暑病에 煩渴, 吐瀉가 있을 수 있으며 伏暑證, 注夏病 등이 있다. 여름에 차가운 음식을 삼가고 잠자리를 조용하고 깨끗하게 하며, 性生活을 禁하고, 생각을 고요히 하여 心氣를 고르게 하는 것이 여름을 잘 보내는 방법이다.¹⁰⁸⁾

4) 濕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

濕으로 인한 발병은 기후환경의 濕도와 일정한 관계가 있어, 대개 여름과 초가을에 많이 발생한다. 오랫동안 濕氣가 많은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에게도 濕病이 발생하기 쉽다. 濕病의 특징은 첫째, 濕은 陰邪이므로 쉽게 제거되지 않고 병의 기간이 길다. 둘째, 濕邪는 정체되는 성질이 있어 身體沈重, 四肢困倦, 頭重如裹, 關節不利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셋째, 濕邪는 비위로 침범하기 쉬우므로 食慾不振, 消化不良, 胸悶, 腹脹, 大便稀薄, 小便短少, 舌苔厚膩, 脈濡緩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넷째, 全身 및 局所에 水濕瘀積 증상이 나타나므로, 水腫 脚氣 濕疹 瘡瘍 등이 생긴다. 外濕은 외부의 濕邪로 야기된 것

107) 許浚, 앞의 책, 暑: 暑者相火行令也, 409쪽

108) 許浚, 앞의 책, 暑, 409-412쪽

이며, 內濕은 脾虛로 인해 진액을 운화할 수 없어 발생된다. 濕邪는 대개 다른 외사와 相兼하여 발병시킨다. 風寒熱邪 모두와 겸하여 나타나는데, 風濕, 寒濕, 濕熱 등이 그것이다.¹⁰⁹⁾

『東醫寶鑑, 濕門』에서 濕의 성질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¹¹⁰⁾

5) 燥가 人體에 미치는 影響

燥란 臨床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乾燥症候이며 주로 津液의 耗傷으로 야기되지만 燥邪를 感受하여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津液의 損傷은 대개 外感熱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다. 주로 高熱과 發汗過多 또는 吐瀉로 말미암아 대량의 津液이 손상된 소치이다. 중요한 증후로는 口渴引飲, 舌紅乾燥無津이 있다. 燥邪가 人體에 미치는 영향은 삼초에 각각 다르다. “上焦則咳(乾咳), 中焦則渴, 下焦則結(大便乾結)”이라 하였다.¹¹¹⁾

깁깁한 것, 마른 것, 뻣뻣한 것, 터져서 벗겨지는 것은 모두 燥에 속한다. 火熱이 지나치면 金氣가 쇠하여 風이 생긴다. 風은 濕을 누르기 때문에 熱이 津液을 소모하여 마르게 된다. 陽이 실하고 陰이 허하면 風熱이 水濕을 눌러서 燥하게 된다. 肝은 筋을 주관하기 때문에 風氣가 저절로 심해지고, 燥熱이 더해지면 筋은 몹시 마르게 된다. 燥金은 수렴하는 것을 주관하니 그 脈이 緊澁하다. 그래서 병이 들면 뻣뻣하고 당기어 입을 악무는 것이다. 燥病은 血이 적어져서 온몸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燥는 肺金의 근본이다. 燥金이 熱을 받으면 변하여 마르고 곱끄럽게 된다. 風은 濕을 이기고 熱은 진액을 소모하기 때문에 마르게 되는 것이다. 겉에서 피부가 터져서 벗겨지고 간지러우며, 속에서 마르면 精血이 마른다. 上部에서 마르면 목구멍과 코가 마르고, 下部에서 마르면 大小便이 막힌다.¹¹²⁾

6) 火가 人體에 미치는 影響

六淫 중에 暑, 火는 있으나 熱은 없다. 그러나 暑, 火가 병을 일으키면 모두 熱象이 나타나며 또한 熱證에 속하므로 이 三者는 실제로 異名同類이다. 火熱의 병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全身의 열상으로 高熱, 惡熱, 心煩, 小便短赤, 面紅, 舌紅, 脈數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둘째, 火熱은 津液을 손상시키므로 舌乾無津, 口渴喜冷飲, 大便乾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셋째, 火熱은 쉽게 맥락을 손상시키므로 迫血妄行하게 하여 出血 또는 斑疹이 발생된다.¹¹³⁾

109) 金完熙, 앞의 책, 濕의 病證, 338-339쪽

110) 許浚, 앞의 책, 濕: 濕乃水氣, 濕氣沈人不覺, 火熱生濕, 濕病類傷寒, 中濕, 風濕, 寒濕, 濕痺, 濕熱, 濕溫, 破傷風, 濕多身痛暑無身痛, 濕有內外之殊, 413-415쪽

111) 金完熙, 앞의 책, 燥의 病證, 346-349쪽

112) 許浚, 앞의 책, 燥: 燥因血少, 燥者肺金之病, 416쪽

113) 金完熙, 앞의 책, 熱火暑의 病證, 333쪽

君火는 心과 小腸이 하는 일이며, 相火는 心包絡과 三焦가 하는 일이다. 火는 사물을 사라지게 한다. 金을 녹이고 土를 무너지게 하며, 木을 왕성하게 하고 水를 마르게 하는 것이 모두 火의 작용이다. 火의 병은 그 해독이 매우 심하고 변화가 매우 빠르며, 형세가 잘 드러나고 죽는 것이 매우 빠르다.

氣가 교류할 때는 움직임이 많고 평온함이 적는데, 움직임은 모두 火의 작용에 속한다. 움직임이 심해져서 병이 들면 죽는다. 相火는 타오르기 쉽기 때문에 五性の 厥陽之火와 서로 부추기어 妄動하게 된다. 火가 마음대로 타오르면 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 끊임없이 타올라, 眞陰을 줄이니 陰이 허하게 되어 병이 든다. 陰이 끊어지면 죽는다. 또한 五臟六腑의 厥陽之火는 五志에 뿌리박고 있는데, 六欲과 七情이 격동하면 이것을 따라 타오른다. 크게 성내면 火가 肝에서 일어나고 취하거나 배부르면 火가 胃에서 일어나며, 성생활을 하면 火가 腎에서 일어나고 슬피하면 火가 肺에서 일어난다.

火는 元氣, 穀氣, 眞氣의 賊이다. 五臟의 陰이 모두 충족한데도 도리어 熱이 성한 것은 實熱이 있는 것이다. 뼈가 무력해지고 살이 녹으며, 筋이 늘어지고 血이 마르며, 皮膚가 쭈글쭈글해지고 털이 빠지는 것은 陰이 부족하여 熱病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虛熱이다. 脈이 實數하면 實熱이 있는 것이다. 實火가 있으면 안팎에 모두 열이 나고 갈증이 나며, 밤낮으로 潮熱이 있고 大小便이 막힌다. 虛火가 있으면 간혹 潮熱이 있으며 입은 마르나 渴症은 없다.

五心煩熱이란 火가 땅 속에서 뭉친 것이다. 四肢는 脾土에 속한다. 心火가 脾土 속으로 들어간 뒤 제대로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男女의 四肢에서 열이 나고 肌肉에서 열이 나며, 筋에서 열이 나고 骨髓에서 타는 듯이 열이 나며, 손으로 누르면 지지듯이 뜨거운 것은 열이 土에 잠복한 것이다. 冷氣라 하더라도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火이다. 이는 積熱이 심해진 것이다. 氣가 좌측에서 일어나는 것은 肝火이다. 氣가 배꼽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은 陰火이다. 氣가 발바닥에서 일어나 불같이 뜨거워져 배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虛하기 때문이다. 火가 깊은 곳에서 일어나면 熱에 하나도 살리지 못한다.

六氣는 홀로 인체에 작용하기도 하고 같이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六氣의 성쇠와 관련이 있으며 인체의 성쇠와도 관련이 있다. 강력하거나 지속적인 邪氣는 강한 인체에도 작용하지만 개인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인체 내부의 六氣와 관련이 있다. 가령, 인체 내부에 燥熱이 많은 사람은 外邪 중에서 燥熱에 쉽게 감응된다. 六氣는 外邪이나 인체에 작용할 때는 대부분 内生六氣와 서로 감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7) 地理와 人體

地理는 環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地理는 인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준다. 『東醫寶鑑』에서는 『內經』을 인용하여 地理의 대체를 논하고 각 질병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¹¹⁴⁾

지리적 언급의 처음은 東南과 西北 지방의 차이를 陰陽論으로 설명하고 있다.¹¹⁵⁾ 東南과 西北은 중국을 중심으로 보고서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東北亞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대강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東南과 西北의 지리적 환경으로 인하여 壽命, 疾病, 飲食居處가 각각 다르다.¹¹⁶⁾

陰陽으로 高原과 低地帶를 양분하여 壽命, 疾病, 飲食居處를 비교한 것은 현대의 통계적 조사에도 매우 부합한다. 그루지아 공화국의 코카서스 마을,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 중국의 위그루 마을, 스페인의 루르드 마을, 남미의 빌카밤바 마을, 일본의 유즈리하라 마을은 세계적인 장수촌으로 꼽히는데, 대부분 해발 1,200~1,500m의 산악지대나 고원의 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문명사회와 동떨어졌다는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물이 좋고 자연환경이 좋은 것 또한 지대가 높아 陰精이 올라 그러하다는 위의 설명과 매우 부합된다.

地理를 西北과 東南의 二分法에서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內經』을 인용하여 東西南北 그리고 中央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¹¹⁷⁾

이렇게 地理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거론한 것은 地理가 환경의 중요한 요소로서 飲食, 衣服 등 문화뿐 만 아니라 인체의 虛實, 疾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東醫寶鑑』에서는 이러한 일반론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질병에 있어서도 地理的 差異에 따라 疾病의 原因이 다르므로 治法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地理的 差異는 飲食 즉 五味의 차이를 야기하고, 五味의 차이는 인체의 차이를 만든다. 온 몸을 영위하는 氣는 곡식에서 생기며,¹¹⁸⁾ 神 또한 五味에서 생긴다.¹¹⁹⁾

東武 李濟馬의 후예들 중에는 體質的 長點을 최대화하고 缺陷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도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충고한다. 이는 자칫 偏食을 유발하여 五臟의 조화로운 滋養을 방해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고, 병이 나면 병에 따라 음식을 가리는 것이 올바른 養生法이라 할 수 있다.

地理的 差異는 生活과 文化뿐만 아니라 形色의 차이도 유발한다.

(8) 人體의 盛衰와 外邪

대체로 病은 陰이나 陽에서 생긴다. 병이 陽에서 생기는 것은 비바람이나 찬 기운, 더위에 상했을 때이고, 陰에서 생기는 것은 飲食, 居處, 性生活, 七情에 상했을 때이다. 그런데 비바람이나 찬 기운, 열은 虛邪를 만나지 못하면 홀로는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 지나치게 근심하고 생각하여 心이 상하고 몹시 찬 기운에 肺가 상하고 성내거나 노하

114) 許浚, 앞의 책, 天地運氣: 天地不足之方, 331쪽

115) 서북과 동남의 지리적 차이는 『淮南子, 天文訓』에서도 기술하고 있다.

116) 許浚, 앞의 책, 天地運氣: 地理有壽夭之異, 南北病治法, 331쪽

117) 許浚, 앞의 책, 天地運氣: 四方異宜, 331쪽

118) 許浚, 앞의 책, 氣: 氣生於穀, 86쪽

119) 許浚, 앞의 책, 神: 五味生神, 94쪽

여 肝이 상하고, 술에 취한 다음 성생활을 하거나 땀을 흘린 다음 바람을 맞아서 脾가 상하고 지나치게 힘들게 일하거나 성생활을 하면서 땀을 흘린 뒤에 목욕을 하면 腎이 상하는데,¹²⁰⁾ 이것이 인체가 쇠하여 虛邪를 부르는 病理이다.

病이 陰에서 생기는 경우는 內因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으로 人體의 正氣가 衰弱해진 경우이다. 病이 陽에서 생기는 경우는 外因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으로 內因과 구별이 된다. 하지만, 外因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에도 人體의 正氣가 쇠약해져서 감응되는 것이다. 결국, 內因이든 外因이든 질병은 人體의 正氣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¹²¹⁾

神明은 生化의 根本이고 精氣는 萬物의 體 이니 그 形을 보전하면 살고 그 精氣를 기르면 性命이 길이 보존된다고 하였다.¹²²⁾ 『東醫寶鑑』에서는 人體의 精氣를 기르는 방법은 잘 설명하고 있다.¹²³⁾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歲運氣, 四時, 晝夜, 地理에 맞추어 사는 것이 人體의 精氣를 기르는데 매우 중요하다. ‘身形’문에 설명되어있는 虛心合道, 學道無早晚, 人心合天機, 搬運服食, 按摩導引, 攝養要訣, 還丹內煉法, 養性禁忌, 四時節宜, 先賢格言 등이 양생법의 자세한 방법이고 양생을 도와주기 위한 藥餌와 單方도 설명되어 있다.

正氣의 盛衰는 形과 氣를 비교하여 알 수 있다. 形과 氣가 서로 맞으면 長壽하며 그렇지 않으면 夭折한다.¹²⁴⁾

醫師는 神明과 通하고 調和를 부러 夭折할 사람을 長壽하게 할 수 있고 長壽할 사람은 神仙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¹²⁵⁾ 이러한 醫師의 權能은 醫師 스스로 精氣를 강하게 단련하고 道를 배움으로써 가능하다. 즉, 養生法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神明을 통하고 調和를 부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歲運, 四時, 晝夜, 六氣, 地理 등 環境的 要因도 중요하지만 人體의 盛衰가 더욱 중요하다. 精氣가 旺盛하면 環境에 적응할 수 있는 能力이 생기기 때문이다. 精氣가 왕성하려면 養生을 잘 해야하고, 養生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 이것은 ‘居敬窮理’의 性理學的 養生觀과 일맥상통한다.

(9) 社會와 人體

人間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므로 社會的 動物이라 한다. 따라서 人間은 社會로부터 끊임없이 影響을 받는다. 影響 정도가 아니라 社會에 의하여 決定되는 부분이 많다. 人間의 思考조차 전적으로 社會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120) 許浚, 앞의 책, 辨證: 陰陽生病, 340쪽

121) 許浚, 앞의 책, 辨證: 肥瘦辨病候, 341쪽

122) 許浚, 앞의 책, 身形: 保養精氣神, 74쪽

123) 許浚, 앞의 책, 身形: 壽夭之異, 論上古天真, 73-74쪽

124) 許浚, 앞의 책, 身形: 形氣定壽夭, 73쪽

125) 許浚, 앞의 책, 身形: 壽夭之異, 73쪽

는 매우 극단적인 이론이기는 하지만, 人間에 대한 社會의 影響力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설명하고 있다.¹²⁶⁾

社會 構成員으로서 社會를 벗어날 수 없는 人間은 生活 속에서 여러 가지 葛藤을 접하며 이로 인하여 疾病이 유발되기도 한다. 『東醫寶鑑』은 心身醫學을 창시하여 마음의 병이 신체장애로 나타나고, 신체장애가 마음의 병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듯이, 이러한 社會의 葛藤이 인체에 질병을 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²⁷⁾

『宣祖實錄』에 보면 여러 신료들이 許浚을 탄핵하면서 그의 잘못을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가운 약을 濫用하여 宣祖의 건강을 해쳤다고 비판한다.¹²⁸⁾

우리 민족이 즐겨 먹는 고추는 朝鮮 後期에 들어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한다.¹²⁹⁾ 朝鮮 後期가 黨爭과 換局 등으로 매우 시끄러웠을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일반 백성들에게는 매우 안정된 시기였고 그러하기에 고추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가슴에 막혀 熱이 있는 사람은 嘈雜症이 생기기 쉬우며,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배탈이 나거나 혹은 가슴 답답증이 더해진다.

現代는 급속도로 變化하고 있다. 歷史를 통틀 變化보다도 現代의 십년 변화가 더욱 크다고 한다. 또한, 인간은 수많은 情報와 知識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 社會的, 經濟的 地位가 결정된다. 1980년대 앨빈 토플러가 『제삼의 물결(The Third Wave)』, 『미래의 충격(Future Shock)』, 『권력이동(Power Shift)』에서 주장한 미래의 모습이 대부분 실현되어 더 이상 놀랄만한 일이 아니듯이,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¹³⁰⁾

安住할 수 없는 環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지러운 시대와 같다. 이러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現代人은 火가 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許浚이 宣祖에게 그러했듯이 요즘도 차가운 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III. 結論

이상과 같이,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許浚의 自然觀을 연구한 결과, 아래와 같은 結論을 얻었다.

126) 베르너 슈타크, 임영일 번역, 知識社會學, 한길사, 1983, 317쪽

127) 許浚, 앞의 책, 用藥: 母伐天和, 348쪽

128) 선조 218 40/11/13(임인) /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대사간 유간이 인형하다. 동방미디어, 경희대 중앙도서관 제공.

129) 주경철, 문화로 읽는 세계사, 사계절, 2005, 253-254쪽

130)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80, 191 & 367쪽

1. 宇宙 發生은 混沌未分의 상태인 太易에서 太初, 太始, 太素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는 氣, 形, 質의 분화를 의미하며, 太初의 시작은 ‘一氣의 드러남’에서 비롯되었다. ‘一氣의 回轉’에 의하여 清濁이 나누어져 形象을 이루게 되었다. ‘一氣의 回轉’에 의한 形象의 이름은 별의 生成에 대한 현대과학이론인 吸着說과 매우 유사하다. 吸着說은 별의 생성에 대한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 떠오르는 지금, 許浚의 宇宙 發生說은 아직도 유효함을 알 수 있다.

2. 許浚은 宇宙가 晝夜 그리고 四時와 같이 循環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一元 즉 129,600년을 週기로 消息運動을 반복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朱子의 下降史觀과 다를 뿐만 아니라, 호킹박사가 주장한 ‘빅뱅(Big Bang)에서 빅크런치(Big Crunch) 혹은 블랙홀(Black Holes)까지’의 直線的 宇宙觀과도 대치된다. 호킹박사의 이론은 基督敎의 歷史觀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物理學界에서도 論駁당하고 있는 지금, 許浚의 循環的 宇宙觀이 代案으로 제시될 수 있다.

3. 宇宙構造와 관련하여, 許浚은 渾天說과 左旋說을 채택하였다. 이는 人間中心에서 宇宙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 사이 거리를 8만 4천리라고 하였으며 이는 朱子도 의문시한 내용이나 韓醫學的으로 運氣를 설명할 때 매우 타당하므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許浚의 宇宙構造論은 宇宙 構造가 어느 정도 밝혀진 지금 관점에서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는 人間 中心에서 宇宙를 파악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이며, 당시 天體의 움직임을 現代科學의 수준만큼 정교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宇宙構造論이 정교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宇宙構造論은 現代化가 필요하다.

4. 우주 아날로지는 東, 西洋을 막론하고 古代에 같이 존재하였다. 이는 宇宙 혹은 自然에 대한 敬畏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地域을 막론하고 이러한 사고가 태생하였다. 西洋의 우주 아날로지는 별다른 발전이 없다가 17세기 중엽부터 自然科學이 발달하자 死藏되었다.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天人相應’의 이론으로 발전하여 陰陽五行說과 함께 韓醫學의 兩大軸이 되었다. 許浚 또한 天人相應을 강조하여 『東醫寶鑑』에서 가장 먼저 提綱으로 제시하고 있다.

5. 국가 아날로지 또한 어느 문명에서나 태생되어 사용되었다. 『東醫寶鑑』에서도 신체의 각 부분을 매우 상세히 국가에 비유하고 있으며, 治國과 治身을 동일선상에서 파악하였다.

6. 우주 아날로지와 국가 아날로지는 鍊金術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고 니담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앞선 鍊金術을 지닌 집단이 養生術을 개발, 보급하였고 그 養生術은 宇宙와 人間의 相關性에 기초하여 道家 思想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하퍼는 주장하고 있다. 이는 養生術, 神仙思想, 鍊金術, 醫藥術 등이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金斗鍾의 의견을 뒷받침한다. 『東醫寶鑑』은 宇宙와 人間의 相關性에 기초하여 自然觀, 養生術 그리고 醫藥術을 통합하여 민족적 전통을 복원하였다.

7. 運氣學說은 60년 단위로 氣候가 循環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개략적으로 보면 6년 단위로 변화하며 이를 나타낸 것이 ‘六十年客氣旁通圖’이다. 이에 대한 妥當性은 많은 氣

候資料를 바탕으로 연구해야겠지만, 臨床에서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 運氣가 인체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돌림병인 瘟疫이며, 許浚의 運氣學說은 돌림병의 발병을 미리 예측하여 대처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8. 四時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環境要因 중에 하나이므로, 四時養生은 養生術의 기본이 된다. 生長收藏의 순환은 自然의 순환과 人生의 순환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東醫寶鑑』은 四時를 매우 중시하여 이에 합당한 養生, 疾病, 治療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9. 晝夜는 四時보다도 더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晝夜와 四時는 萬物의 始作과 끝이고 生死의 根本이다. 『東醫寶鑑』에서는 晝夜에 따른 生理, 病理, 疾病, 診斷, 治療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晝夜는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이다. 機械的 思考에 근거한 環境論에서는 晝夜와 四時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21세기 環境論은 晝夜와 四時 등 실제 人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環境要因에 力量을 집중한 『東醫寶鑑』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10. 六氣는 風寒暑濕燥火로 氣候를 나타낸다. 歲運氣가 일 년 단위의 氣候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면 六氣는 季節 등에 기초한 세부적인 氣候를 나타낸다. 六氣는 五行의 相生相克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溫度, 濕度, 風도에 의하여 氣候를 파악하는 現代의 指標보다 매우 합리적이다. 六氣는 外邪의 대표이지만, 『東醫寶鑑』에서는 ‘内生六氣’를 중시하였다. 즉 인체 내부에 六氣가 균형이 무너져 일부가 성하게 되면, 바깥의 육기와 ‘同聲相應 同氣相求’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체를 小宇宙로 파악한 ‘天人相應’과도 통한다.

11. 風은 運動性이 極大化 된 것으로 균형이 깨어지면 발생한다. 濕을 조절하여 燥하게 한다. 寒은 運動性 측면에서 風과 대비가 되며, 溫度 側面에서는 火熱과 대비가 되고, 季節 측면에서 暑와 대비가 된다. 暑는 여름 더위로 相火의 작용이다. 濕은 人體의 下部를 주로 침입하며 長夏나 四季에 성하다. 濕度 측면에서는 燥와 대비가 되고 風의 조절을 받는다. 接着性이 강하여 다른 外邪와 잘 붙어 다닌다. 燥는 가을 사기로 濕과 대비를 이룬다. 인체에서는 血과 津液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火는 위로 오르는 성질이 매우 강하여 주로 인체 상부에 병변이 나타나며, 六氣로 인한 질병 중 대부분은 濕熱에 의한 病이다.

12. 地理에 의하여 壽命, 疾病, 飲食, 居處가 달라진다. 高低는 陽精과 陰精의 차이를 두어 壽命과 관련이 있고, 氣候의 冷溫과 燥濕은 人體의 形과 氣의 차이를 불러와 疾病에 차이가 있으며, 地方마다 飲食이 다르므로 이는 五味의 차이로 臟腑와 外形의 기초 물질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居處 또한 生活과 習俗을 달리한다.

13. 人體의 盛衰는 自然環境과 相關關係이다. 人體의 正氣가 성하면 自然環境에 의한 外邪가 人體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오히려 自然環境이 변화하고, 人體의 正氣가 쇠하면 自然環境에 영향을 많이 받아 人體에 變化가 일어난다. 이러한 연유에서 인간은 모여 산다. 精氣는 養生으로 자양되는데 養生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居敬窮理의 性理學的 養生觀과 닮아있다.

14. 人間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社會 또한 중요한 환경요인이 된다. 『東醫寶鑑』에서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인체에 水氣가 성하게 되고, 어지러운 시기에는 인체에 火氣가 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고추가 朝鮮 後期에 들어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朝鮮 後期가 黨爭과 換局으로 시끄러웠으나 민중들에게는 매우 안정적인 시기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傳統的 價値가 모두 무너지고 環境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지금은 비록 戰時가 아니더라도 어지러운 시기이므로 火가 성한 病證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15. 醫書는 人間을 다루고 있고 人間은 自然과 相互 有機的 關係를 맺고 있으므로, 자연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잘못되었다면 醫書의 價値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許浚의 醫論은 현대적 관점으로 판단하더라도 合理的이고 妥當한 自然觀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그의 醫論이 學問과 臨床에서 유효하듯이 그의 自然觀도 대부분 아직도 有效하다. 미진한 부분은 現代科學의 성과를 바탕으로 補充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單行本

1. 許浚, 原本 東醫寶鑑 完營重刊影印本 新增版, 南山堂, 1998, 5刷, 서울
2. 許浚, 윤석희 외 옮김, 대역 동의보감, 동의보감출판사, 2005, 경남
3.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들녘, 2005, 10쇄, 서울
4. 야마다 케이지 지음, 김석근 옮김, 朱子の 自然學, 통나무, 1998, 서울
5. 미우라 구미오, 이승연 옮김, 주자와 기 그리고 몸, 예문서원, 2003, 서울
6. 허탁 이요성 역주, 주자어류, 청계, 1999, 서울
7. 장재, 장운수 옮김, 정몽, 책세상, 2002, 서울
8. 具萬玉, 朝鮮後期 科學思想史 研究 I, 혜안, 2004, 서울
9.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한겨레신문사, 2004, 2쇄, 서울
10.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 서울
11. 金完熙, 한의학원론, 성보사, 1999, 3쇄, 서울
12. 주경철, 문화로 읽는 세계사, 사계절, 2005, 서울
13. 李相信, 歷史學 概論, 신서원, 2004 4쇄, 서울
14. Stephen Hawking, A Brief History of Time, Bantam Books, Great Britain, 1995, London
15. 칼 세이건, 서광운 역, 코스모스, 주우, 1983 18판, 서울
16. 조셉 니담. 이석호옮김, 中國의 科學과 文明 II, 을유문화사, 1989, 서울
17. 프리츠오프 카프라, 이성범 구윤서 역,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범양사, 1998, 서울
18. F. Capra, 이성범 역,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범양사 출판부, 1998, 서울
19. 제임스 러브록, 홍욱희 옮김, 가이아-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구, 2004, 서울
20. 楊禮壽, 醫林撮要, 여강출판사(영인본), 1988, 서울

21. 明文堂編輯部, 原本周易 (乾), 明文堂, 1999 重版, 서울
22. 明文堂編輯部, 原本周易 (坤), 明文堂, 1999 重版, 서울
23. 劉安, 淮南子, 上海古籍出版社, 1993, 4次 印刷, 上海
24. 王卡點校,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中華書局出版, 1997 2차인쇄, 北京
25. 陳大舜, 맹용제 외 옮김,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1, 서울
26. 조동일 외, 기학의 모험 2, 들녘, 2004, 서울
27. 李滉, 聖學十圖附錄卷之一
28. 이덕일,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김영사, 2002, 서울
29. 최한기, 손병욱 역주, 기학-19세기 한 조선인의 우주론, 통나무, 2004, 서울
30. 張璐, 張氏醫通, 一中社, 1992년 影印, 서울,
31. 程國彭, 경희대 한의과대학 50기 졸업위 역, 醫學心悟, 정담, 서울,
32. 선조실록, 동방미디어,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제공, 서울
33. 洪元植 監修, 朴贊國 著,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上,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8, 서울
34. 金圭烈 編譯, 黃帝內經素問校注匯粹 上, 一中社, 1998, 서울
35.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北京
36. 全炳機, 韓國科學史, 이우출판사, 1982, 서울
37.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2000, 서울
38.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서울
39. 동아 백년옥편, 두산 동아, 2000 4쇄, 서울
40. Paul U. Unschuld, Medicine in China - a History of Idea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Los Angeles
41. 박문기, 한자는 우리글이다, 양문, 2001, 서울
42. 베르너 슈타크, 임영일 번역, 知識社會學, 한길사, 1983, 서울
43.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80, New York
44. Alvin Toffler, Power Shift, Bantam books, 1990, New York

論文

1. 金洪均, 朝鮮 中期 醫學의 系統에 관한 研究, 1992,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2. 金南一, 韓國韓醫學史 再定立(하): 제7장 朝鮮後期の 醫學, 韓國韓醫學 研究所, 1995
3. 金南一, 韓國韓醫學의 學術流派에 관한 試論, 2004 韓國醫史學會 정기학술대회 논문
4. 정행규, 양생에 관한 문헌연구-동의보감을 중심으로, 경희대 원전의사학 박사학위논문, 1995
5. 김시천, 노학에서 역학으로, 한국도교문화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03
6. 拙稿, 東醫寶鑑과 道家思想, 2005
7. 拙稿 '金斗鍾의 上世醫學史 批判', 2005,

8. Donald Harper, The bellows analogy in Laozi V and Warring states
Macrobiotic Hygiene, Early China 20, 1995